



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아홉 번째 제안**  
발표: 불법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자 엄중 단속

*다른 주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뉴욕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자에게 폐쇄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 시행*

*21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페널티 및 벌금을 강화하는 제안*

*뉴욕 주민을 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지사의 적극적인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제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담배 및 기타 담배 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엄중히 단속하는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아홉 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다른 주나 다른 출처에서 비과세 담배를 구입하여 뉴욕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업장을 폐쇄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21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페널티 및 벌금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세되지 않은 담배를 밀매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것은 단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입니다. 담배는 매년 수천 명의 삶을 앗아가며,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희생시키면서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소매업자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제안으로 파렴치한 사업체는 숨방망이 처벌 대신 무거운 벌금 또는 폐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시에서 담배에 적용되는 적극적인 과세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이의 부산물로 불법 소매업자들이 법을 위반하여 세금을 회피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일부 파렴치한 소매업자는 싼 비과세 담배를 계속 밀매하며, 이는 흡연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집행 및 공중 보건 이니셔티브에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의 수익을 빼앗습니다. 또한 법률을 준수하는 소매업자들의 경쟁력에 불이익을 주며, 지역과 주가 담배 판매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제품의 가격을 규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러한 과세되지 않은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소매업자는 사업을 폐쇄해야 할 가능성을 포함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위반 시 복권 또는 소매 주류, 와인 또는 맥주 판매와 같은 면허 또한 철회합니다.

현재 뉴욕주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DTF)는 비과세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렴치한 소매업자 대부분은 단순히 이러한 벌금을 사업을 하는 비용으로 간주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는 뉴욕에서 소매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인 소비자로부터 소매 판매금 및 기타 세금을 얻을 권한을 취소함으로써 불쾌감을 주는 소매 업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2019년 11월에는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을 구매하는 법적 연령이 21세까지 증가하여 청소년들이 담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재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했을 때의 최소 벌금은 300달러입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최소 벌금은 1,000달러로 증가할 것이며, 반복적인 위반을 저지른 소매업체는 6개월이 아닌 1년간 등록이 상실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조세재무부(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는 담배 제품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소매업자의 규제 검사 횟수를 이미 세 배로 늘렸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유해한 담배 및 니코틴 제품 사용을 막음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7년 Cuomo 주지사는 내부 공기 청정법(Clean Indoor Air Act)을 확대하여 거의 모든 일터에서 전자 담배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와 대중을 유해한 2차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전자 담배 액상 소매업자가 조세재무부(DTF)에 등록해야 했으며, 1월 1일부터 전자 담배 액상에 대한 20%의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